

1997년 시멘트 수급동향

김재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관리과 대리)

1. '97년 국내 경제동향

경기순환 측면에서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제조업 출하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호조와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상승요인이 있으나 민간소비 지출의 부진과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GDP성장률은 당초의 7.1%선보다 크게 낮은 6%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중 1.5%의 감소를 보인 설비투자는 계속된 한계기업의 부도와 그로 인한 금융부문의 경색으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3/4분기에는 13%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대형투자의 마무리와 경기향방에 대한 불안감의 지속,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역시 경기하강의 여파와 임금동결 등의 분위기로 작년보다 낮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5% 정도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금년에도 4.5% 내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실업률은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월에 3.4%를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 점차 낮아져 9월에는 2.2%를 기록했으나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 환율급등과 금리상승 등으로 2.7% 정도

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2. '97년 국내 건설동향

건설업체의 부도증가로 증소하청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97년에 계획되었던 공공공사 물량의 70%인 2조6,547억원을 1/4분기 이전에 조기 발주하였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SOC 민자사업은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참여 기업들이 적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월 들어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금융지원을 계기로 각 기업들이 사상최대의 군살빼기에 나선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축소가 불가피하여 현재 추진중인 SOC 민자유치 사업이 무더기로 연기 또는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업계에 따르면 추진중인 상당수 민자사업이 최근 금융시장 붕괴에 따른 기업자금난으로 연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건설선행지표인 '97년 건축허가동향을 보면 연초에 주거용이 강세를 띠면서 전년보다 증가하여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으나, 2월부터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전부분에 걸쳐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4월까지 이어졌고 5월에 접어들면서 지방중소도시의 택지개발이 활기를 띠어 연간으로는 1월 이후

<표-1> 1997년 건축허가 실적

구분	건축허가실적 (1~10월)				
	'95년	'96년	'97년	'96대비	
용도별	주거용	49,230	48,641	48,054	98.8
	상업용	24,019	22,497	22,828	101.5
	공업용	11,563	10,377	7,759	74.8
	문교사회	5,155	5,055	5,422	107.3
	기타	4,527	6,170	5,731	92.9
구조별	철골조	82,837	82,475	81,964	99.4
	조적조	7,710	6,501	4,444	68.4
	목조	60	105	146	139.0
	기타	3,887	3,660	3,241	88.6
	계	94,494	92,741	89,795	96.8

자료: 건설교통부.

처음으로 전년 수준을 뛰어 넘어섰다.

하반기 건축허가면적은 3/4분기까지 지속되던 감소세가 4/4분기에 들어서서는 국내 대기업의 부도행진이 계속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에서 아파트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수도권에서 할인매장 건축이 늘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까지의 건축허가실적은 89,795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741천㎡에 비하여 3.2% 감소하였고 95년의 94,494천㎡에 비해서도 5.0% 감소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전체 허가면적의 53.5%를 점유한 주거용이 주택경기 회복지연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48,054천㎡, 상업용은 22,828천㎡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공업용은 경기하락의 지속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한데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5.2%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7,759천㎡에 그쳤다. 문교사회용 및 기타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11,153천㎡에 머물렀다.

<표-2> 1997년 건설수주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발주자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상반기	402,740	148,428	254,312	182,078	220,662
하반기	472,000	207,000	265,000	182,660	289,340
연간	874,740	355,428	519,312	364,738	510,002
전년비	18.5	9.3	25.9	17.6	19.2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97년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상반기 40조 2,740억원, 하반기 47조 2,000억원을 합하여 연간 87조 4,74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35조 5,428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51조 9,312억원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36조 4,738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고 건축공사가 51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아졌다.

3. 시멘트 수급동향

<표-3> 1997년 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천톤, %)

구분	공 급			수 요			재 고
	생산	수입	계	내수	수출	계	
1/4분기	11,787	344	12,131	11,524	227	11,751	1,196
2/4분기	16,424	1,077	17,501	17,571	147	17,718	979
상반기	28,211	1,421	29,632	29,095	374	29,469	
3/4분기	15,276	1,049	16,325	15,602	107	15,709	1,596
4/4분기	16,627	500	17,127	17,309	156	17,465	1,307
하반기	31,903	1,599	33,502	32,911	263	33,174	
합계	60,114	3,020	63,134	62,006	636	62,642	

주: 12월은 추정치, 크링카 수출 540천톤 별도.

가. 생 산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은 각각 53,873천톤, 60,114천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하였다. 크링카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가 12,277천톤으로 5.3% 증가, 2/4분기가 13,360천톤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고, 3/4분기는 13,951천톤으로 2.4% 증가를, 4/4분기가 14,285천톤으로 4.8% 증가를 보여 2/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1,787천톤, 2/4분기 16,424천톤, 3/4분기 15,276천톤, 4/4분기 16,627천톤으로 생산 비중으로 볼 때 상반기 46.9% 하반기 53.1%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시멘트 공급을 위한 가동율제고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과 비교할 때 1/4분기 9.0% 증가, 2/4분기 4.7% 증가, 3/4분기 0.3% 감소, 4/4분기 7.7% 증가로 3/4분기에만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상반기까지는 한일시멘트 증설키른의 본격가동 및 전년 동기간 중 조업중단이 있었던 고려 장성공장의 정상가동, 크링카 수출축소, 기존시설의 가동율제고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28,211천톤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의 수요 저조에 따른 생산조절로 전년수준에 머무르고, 4/4분기 가동율 제고로 7.7% 증가가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60,114천톤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가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을 업체별로 보면 동양 1.7% 증가, 쌍용 3.7% 증가, 한일 11.2% 증가, 현대 2.1% 증가, 아세아 2.2% 증가, 성신 7.0% 증가, 고려 5.4% 증가, 한라 7.6% 증가, 한국고로 3.3% 감소, 대한 67.2% 증가로 한국고로를 제외한 전 업체가 '96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신장율

이 높게 나타난 업체를 살펴보면 먼저 한일의 경우 '96년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간 증설된 밀의 상반기 추가생산(19.0% 증가) 효과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신은 기존시설의 가동율제고 및 '97년 3월에 준공된 부강공장의 증산 효과로 보여지고 한라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증설 4호키른의 추가 기여 및 크링카 수출을 350천톤 이하 감소하여 이를 시멘트 생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전년에 조업중단이 있었던 고려 장성공장(1월~5월)과 대한(5월~6월) 역시 금년동안 정상조업으로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나. 내 수

시멘트 수요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건설경기의 등락과 함께 시멘트 수요도 그 움직임을 같이 한다.

금년에는 SOC 투자확대, 재개발, 재건축, 공공공사 조기발주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는 내수가 활발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일기불순과 대기업의 일련의 부도사태 등 경기침체 현상이 맞물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10.3% 증가, 2/4분기 4.6% 증가, 3/4분기 2.0% 감소, 4/4분기 2.8% 증가하였다. 특히 3/4분기의 경우는 전년 3/4분기가 18.8% 급증했던데 따른 상대적인 둔화현상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하였다.

월별로 볼때 1월~4월, 6월, 8월, 10월, 12월은 증가하였고 5월, 7월, 9월, 11월은 감소하여 5월 이후 월별증감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10월의 경우는 월단위 내수출하 실적으로는 사상최대라 할 수 있는 6,710천톤을 출하하여 일평균 실적으로 216천톤이라는 기록할만한 출하를 보여주었다. 이는 9월 추석이후 부진했던 수요가 이월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악된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시멘트는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계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 주요자재이다. 따라서 기온의 고저, 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봄과 가을이 성수기가 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이 비수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은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때 1월과 2월은 60선에, 7월과 12월은 90선의 상위부문에 위치하여 월별 출하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97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8.6%, 2/4분기 28.1%, 3/4분기 25.2%, 4/4분기 27.9%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6.9%, 하반기 53.1%로 하반기가 다소 우위를 보여준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내수출하를 수요부문별로 보면 10월까지 민수 97.7%, 관수 2.3%로 각각 50,235천톤, 1,208천톤으로 '96년의 민수 97.0%, 관수 3.0%와 비교하면 민수는 0.7% 포인트 늘어난 반면 관수는 0.7% 포인트 감소하였다. 10년 전인 '87년에 내수출하 22,755천톤 중 민수가 19,857천톤으로 87.3%인 것에 비하면 10.4% 포인트가 늘어 매년 1.0% 포인트 이

상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점차 공공공사의 자재수급이 건설회사에서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품종별 출하실적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금년의 경우 벌크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44,371천톤으로 86.3%를 차지하여 '87년의 84.2%에 비하여 2.1% 포인트 증가하였다. 선진국의 일례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95년 93.3%에서 '96년에 93.7%로 미약하나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양국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벌크화 현상은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벌크화를 증가 원인은 건축물이 대형·고층화되면서 사용이 신속, 편리한 잇점 때문에 레미콘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다. 재 고

시멘트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생산능력은 일정한 반면 수요는 계절적으로 변동폭이 심하여 수요의 수준에 따라 재고상태가 변화된다. 따라서 항상 적정 재고를 보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도말의 이월재고가 816천톤, '97년 공급이 63,134천톤(수입 3,020천톤 포함), 수요가 62,643천톤(수출 636천톤 포함)으로

<표-4> 최근 10년간(88~97년) 시멘트 내수 계절지수 및 출하비

구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60.5	60.8	104.7	75.4	113.3	113.8	111.6	112.9	94.1	99.5	102.5	103.1	101.7	119.5	111.1	99.4	110.0	105.9
출하비	5.0	5.1	8.7	18.8	9.4	9.5	9.3	28.2	47.1	8.3	8.5	8.6	25.4	10.0	9.3	8.3	27.5	52.9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307천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내수가 전년대비 3.3% 증가한데 비하여 생산이 5.0% 증가하였고 부족량을 수입으로 충당하여 월별로는 4월, 6월, 10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1,000천톤 이상의 재고를 연중 보유하고 있어 '96년과 같이 재고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애로는 보이지 않았다. 크링카 또한 11월의 1,077천톤을 제외하고는 1,200천톤 이상의 양호한 재고상태를 유지하여 전년에 8월에서 12월까지 1,000천톤 미만의 낮은 재고로 시멘트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11월말 기준 소비재 재고는 중앙 31천톤, 지방 47천톤을 합쳐 78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6%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난 3월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전년이 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급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 수출입

시멘트는 내수위주의 산업으로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위해 수출입이 발생되고 있어, '97년에도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인한 SOC시설의 활발한 확충에 따라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물량을 내수에 우선 충당하고 수출은 해외시장 관리를 위한 최소한에 국한시키고 수입을 통해 국내수급 안정을 기하였다.

'97년 총수출실적은 1,176천톤으로 전년대비 49.6%나 감소, '96년에 이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크링카 540천톤, 시멘트 636천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65.2%, 18.9% 감소하였으며 특히 크링카 수출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감소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내수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장관리 차원의 제한적인 수출이 이루어져 감소현상의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주요 수입국이었던 동남아 국가들이 꾸준한 증설을 통해 일부 국가들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수출경쟁 국가로 탈바꿈되어 수출시장 확보의 어려움 및 수출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짐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링카를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309천톤, 쌍용 591천톤, 한일 27천톤, 현대 15천톤, 한라 234천톤으로 나타나 한일을 제외하고 수출사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96년에 이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요의 증가로 인한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현대가 한라를 통해 수출한 크링카 15천톤이 유일한 실적이다.

수출지역별로 살펴보면 '97년 총수출국은 11개국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었으며 국별 수출실적 비중에서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일본이 39.9%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편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을 추진, '97년 총수입물량은 3,020천톤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수요가 감소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환율급 등으로 수입단가가 저 상승하여 수입량이 줄게 되었다.

수입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344천톤, 2/4분기 1,077천톤, 3/4분기 1,049천톤, 4/4분기 550천톤으로 4/4분기에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수입업체의 적자보전 및 원활한 물량 확보를 통한 국내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시멘트에 대하여 관세할당 품목으로 고시하여 '97년 상반기에 30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1%를, 하반기에

35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1%를 각각 적용하였다.

수입 원산지별로 보면 일본산 1,429천톤, 중국산 1,591천톤으로 중국산 비중이 52.7%로 전년까지 일본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97년에 처음으로 중국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수 송

'97년의 수송실적은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전년보다 2.3% 증가한 50,352천톤을 기록하여 건설경기에 수반된 시멘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송활동이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수송수단별로 수송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철도와 해송이 각각 7.5%, 0.7%의 증가를 보인 반면, 육송은 0.4%의 감소를 보였다. 수단별 수송실적 분담비를 보면 철도 31.6%, 선박 32.1%, 육송 36.3%로 나타나 철도와 선박은 대량 일괄수송이 가능한 잇점에도 불구하고 육송에 비해 점유율이 적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건설현장 적시적소로의 수송이 가능한 육송을 많이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급년들어 타 수송수단에 비해 철송이 증가한 원인으로 철도 운임체제의 변경을 들 수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송실적이 전년대비 3.8%의 증가를

보인 반면 거리비례제가 시행된 7월 이후에 더욱 많은 12.6%의 증가치를 보인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박 및 연안 유통기지를 확충하며 내수시장에서 꾸준한 점유비 증가를 보여온 해송은 타 수송수단보다 대량화물의 수송에 적합하고 단위당 운반비가 적게 드는 장점으로 인해 내수물량의 활발한 수송을 보였으나 수출부진의 여파로 전년과 비교하여 큰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송수단별 수송비율은 계절에 따라 수송패턴이 변화되는데 1/4분기에는 철도 31.2%, 해송 37.3%, 육송 31.5%로 해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4분기가 시멘트 수요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계절로 성수기를 대비한 재고비축을 위해 유통기지로의 시멘트 이송이 많고, 수송 비용상의 효율을 고려할 때 비교 우위를 갖는 해송과 철도에 의해 수송이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시멘트 수요의 성수기로 접어든 4월부터 10월까지의 수송분담율을 보면 철도 31.7%, 해송 30.4%, 육송 37.9%의 점유율을 보여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고비축보다는 건설현장으로 적기수송이 가능한 육송이 수송을 주도하였다. ▲